



결자해지 체악지정



휴대폰에 큰오빠 집 전화번호가 떴다. 흥! 무슨 염치로 내게 전화를 했담? 콧방귀를 꾸며 받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3분 간격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 무시하자 그냥 무시해버리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전화를 받고야 말았다.

“동생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리로 와주면 안 되겠니?”

“나 돈 없어요. 그만 끊어요.”

“아...아니...돈 달라는 소리 아니야. 진짜 아니다.”

마저 듣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지만 아침 내내 나는 얼빠진 사람 같았다. 신경 쓰지 말자, 아무 신경도 쓰지 말자. 속으론 도리도리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 몸은 어느새 큰오빠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시퍼렇게 날 선 미움이었고 사납게 악악거리는 원망이었다. 그래도 한 배를 타고 난 형제니까,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르는 남매니까, 이러한 인과(因果)적 나만의 독백된 용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되레 허용되지 않았다. 분명히 바탕에는 지극히 사랑이 깔려있는 애증(愛憎)일거라 믿고 또 믿어보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큰오빠에게로

건 미움과 원망만이 한데 섞인 증오! 이 뿐이었다.

고등학교 선생인 큰오빠, 누구보다 잘났다고 거만함이 짹이 없던 큰오빠, 현관 앞에 선 큰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에는 기미가 거뭇하고 어깨는 흡사 삶은 시래기처럼 축쳐져 있었다. 올케 역시 비쩍 마른 나뭇가지 같아 보였다.

“와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게. 둘째가 많이 아프다. 5학년 때 소아당뇨 판정 받았던 건 너도 알지? 한 달에 병원비며 입원비며 약값이 몇 백만 원이나 들어가더라. 어디 내 월급으로 감당해 낼 수가 있어야지. 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학교 공금을 몇 차례 횡령했다.”

“선생이 무슨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할 수 있어요?”

“서무과 과장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둘이 한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하고 돈을 빼돌려 같이 나눠 가졌지. 그런데 공무원 감사에 걸려버렸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혹시 걸릴 걸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는 쏙 빼고 나한테만 옴팡 씌워버린 거야.

너 알다시피 올케는 사회며 세상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으면 네 아픈 조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서운했던 게 있다면 모두 풀고 이 오빠를 도와주면 안 될까? 올케언니하고 같이 애를 돌봐주면 하는데….”

“그래서 오빠는 어찌 할 생각인데요?”

“내일 아침 필리핀으로 밀항을 할까 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소. 밀항한다고 칩시다. 평생 험한 일이라고 안 해본 사람이 대체 범죄수배자 신분으로 어떻게 산단 말이요?”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나는 큰오빠와의 대화를 잠깐 멈추고 조카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었다. 스물셋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고모! 하고 불렀다. 두 다리는 괴사가 진행되어 시커멓게 변해있었고, 배에는 투석 줄을 꽂느라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어머니는 앵두꽃 활짝 핀 어느 날 큰오빠를 서울로 유학 보냈다. 그리고 두 해 후 열여섯 언니는 먼 부산의 봉제공장 기숙사로 팔아넘겼다.

똑같은 자식 둘이 홀홀 낯선 객지로 나갔는데, 뒤란 앵두나무 아래 장독대 정화수 앞에 선 어머니는 늘 큰오빠만 기도했다. 부뚜막 위에도 언제나 큰오빠 밥만 고봉으로 한 주발 떠놓았고, 이른 아침 까치가 울 때마다 변함없이 큰오빠 편지만 목 빼어 기다렸다.

서울 갔던 큰오빠가 부산으로 내려간 뒤 남은 식구들도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얼마 후 큰오빠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암으로 눈을 감았고, 몇 년 지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스물 셋 언니는 시집을 갔고, 스무 살 나는 큰오빠 집에 엊혀사는 것이 불편해 나왔다.

기운 잃은 큰오빠를 대신해서 경찰이다 검찰이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총 동원하여 내가 더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교 외에 사회물정이며 법에는 사실상 어두운 큰오빠에게 단호히 말했다.

“오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이 무서워 현실을 피하고자 도피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찌 합니까.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오빠가 벌인 일 오빠가 수습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요.”

“네 말이 맞긴 하다만 너무 두렵다.”

“벌을 받는 것보다 죄 짓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내게 지은 큰오빠의 죄들에 대해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라는 듯, 내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갔다.

“감사원으로부터 소환장이 왔으니 일단은 제 날짜에 가서 감찰조사를 받도록 해요.

모든 건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나이는 내가 훨씬 많아도 세상 경험은 네가 나보다 몇 배는 많으니 네 말 들을게.”

세상 경험,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그 더러운 세상 경험들을 오빠 덕분에 나 참 많이 하며 살았다는 말은 속으로 꾹꾹 눌러 삼켰다.

아무튼 큰오빠는 수염 까칠한 몰골로 감사원에 다녀왔다. 제발 봐달라고 읍소하며 새파랗게 젊은 감사관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더러 탄원서를 써 달라 했다. 나는 탄원서를 쓰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한다며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말해보라 했다. 잠시 눈동자가 떨리는가 싶더니 큰오빠는 나직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8년도였지. 둘째가 그때 당뇨 합병증이 막 시작되더라. 위장장애에 다리 골절에 당뇨망막증까지 와서 수술이 급했어. 그런데 막상 수술비에 입원비에 약값에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때 서무과장에게 술자리에서 푸념을 한 것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 제발 투석만은 안 하기를 바랐는데, 얼마 뒤 배에 구멍을 내고 카테터를 연결해 투석이 시작되었다. 그 날은 둘째 생일날이었다. 어쨌든 돈을 마련하느라 또 서무과장과 합작해 돈을 빼냈다. 처음에는 덜덜 떨리더니 어차피 시작된 거, 횟수가 거듭될수록 덤덤해지더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횟령금액이 1억이나 넘는데 이 돈 모두를 애 병원비와 수술비에만 썼다고요?”

“이제 와서 너한테야 숨길 수 있겠나. 애한테 들어가는 돈 말고 생활비나 다른 데도 쓰긴 썼다.”

“저 좋은 차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혹시 차사고 집 사는데도 쓴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나이 순이나 넘었는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정말 애절히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보살핌 받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나이 스물둘에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체육관 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체육관 문을 닫아버리더니 만날 술이나 퍼 먹고 다니며 건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 부모가 집으로 들어오라 했고 나는 만삭이 되어 시대에도 없어진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오빠,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으나 난 모르니 너 알아서 해라는 식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시집가서 연락이 끊긴 언니,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할 길이 없었다.

그나마 애가 백일이라고 큰오빠 내외와 조카가 왔다. 사돈댁에 첫 걸음을 하면서 흔한 과일봉지 하나 없이 겨우 반 돈짜리 금반지 한 개 달랑 사왔지만, 나도 내 편이 있다는 생색만으로 기뻤고 든든했다.

그리 반나절 큰오빠 식구들은 예의와 범절을 깡그리 무시한 민폐를 다분히 끼친 후 도로 내려갔다. 시아버지의 새 자전거를 부러워하던 조카에게 ‘가져갈래?’ 빙 소리 한 애 아빠의 실수였을까? 큰오빠는 시아버지의 새 자전거를 날강도같이 들고 갔다.

그날 저녁, 나는 애 아빠로부터 진창 매타작을 당했다. 거지같은 것들이라는 말을 열 번도 더 들으며. 모욕과 구박은 점점 더 심해져갔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두 손이 허리띠로 묶인 채, 밟히고 눌리고 졸리는 폭행 또한 매일같이 가해졌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다 내가 병신이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밤 열두 시, 또 나를 두들겨 팬 후 그 작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맨발로 실성한 듯 뛰쳐나왔다. ‘아가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거라.’

큰오빠의 이야기를 다들은 후 나는, 탄원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떻게 써야 할까? 그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날조(捏造)된 내용과 위장(偽裝)의 눈물로 호소해야 하나, 아니면 동기야 어떻든 교육공무원으로써 청렴(清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일삼았던 지난날에 대해 이제라도 양심을 지키며 곧이곧대로 횡령금의 용처를 밝혀야 하나. 잠시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나는 이내 양심을 택했다.

- 존경하는 감사장님,

저의 오빠는 너무도 크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횡령한 돈을 딸의 병원비와 수술비와 입원비 등에 썼지만, 아픈 딸을 핑계 삼아 돈을 빼돌려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님 오빠가 학교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제 조카는 어쩌면, 나이 스물도 채 되기 전에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교 돈을 횡령한 오빠의 죄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부정(父情) 만은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바른 부정(父情)에다 오빠의 그른 부정(不正)을 끼워 넣으며 안위(安危)의 시간들로 지내왔던 제 오빠가, 이제 앞으로 옳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셋방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살게 되자 큰오빠가 연락을 해 왔다. 야속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반가웠다. 하지만 ‘돈 좀 빌려주라.’ 큰오빠의 목적은 동생과의 반가운 해후가 아닌 오직 돈이었다. 마음 약한 나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몽땅 끌어 큰오빠에게 주었다.

다시 몇 달 뒤, 웬일로 술 한 잔 하자는 큰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 이제는 큰오빠와 다른 남매들처럼 사이좋고 우애 있게 살 수 있게 되나 보다... 단단한 나의 착오였다. 본인이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심장까지 빼 줄 듯 그렁거리는 불쌍한 어조와 제스처, 바보 같이 멍청한 나는 다음 날 남에게 빌려 돈 수백만 원을 큰오빠 계좌로 부쳐 주었다.

큰오빠가 돌려준다던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없는데 어찌냐, 너는 자식 안 키우고 사니까 내 어려움을 모른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큰오빠는 전화를 딸깍 끊어 버렸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채무독촉을 해 왔다.

큰오빠가 쓴 돈을 내가 대신 갚느라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과연 알진 알까. 에라이 당신은 정말이지 지금부터 내 오빠가 아니야. 언젠가는 큰오빠와 나도 체악지정(棟鄂之情)을 나눌 날이 오겠지? 아니다 다 부질없는 바람이었다.

내가 빽빽하게 쓴 다섯 장의 탄원서를 읽던 오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훌러내린 눈물방울 속에 어머니가 잠시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나마 다행히 큰오빠의 횡령사건은, 어떻게든 변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속 하에 학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큰오빠는 즉각 퇴직금 한 푼 없이 해임됐다. 28평 아파트도 처분이 되었고 큰오빠네 식구는 올케 친정인 충청도 시골로 이사를 갔다. 큰오빠는 그곳에서 처남 과수원 일을 돋고 있고, 조카는 꼼짝없이 매일 하는 12시간의 투석 때문에 욕창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랑한 날들보다 미워하고 원망한 날들이 더 많았으므로 지난날 서운했던 편린(片鱗

)들이 옥하고 떠오를 때 여태 많지만, 그러나 큰오빠를, 아니 큰오빠의 입장에서 가히 더 이해해보려 한다. 살아오는 동안 큰오빠라고 어디 내게 서운한 것 하나 없고 나 때문에 상처 된 일 없었으랴. 내년 봄, 아니 후년 봄이라도 고향 뒤틸에 앵두꽃이 피거든 우리 그때 꼭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큰오빠에게 문자를 해 본다.

‘오빠 잘 지냅니까?’

‘마음만은 편하다. 저번 달에 앵두 따서 술을 담갔다. 앵두주를 보니 네 생각이 나네.’

청렴⑩ 세상